일 주 문



백양사 백암산 단풍축제

장성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은 11월 5~6일 백양사 일원에서 2011 백암산 백양사 단풍축제 '추야몽'을 개최한다. (061)392-7502



조계사 미얀마 성지순례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11월 15~21일 조계사 나눔프로그램 일환으로 미얀마 성지순례를 봉행한다. (02)732-2183



해인사 평화대장경 특별전시

합천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은 11월 6일까지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남북공동조성 평화대장경을 특별 전시한다. (055)934-3000

개안사 주지 혜오 스님, 호법부장 서리 임명



前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 혜오 스님이 호법부장 서리에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혜오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혜오 스님에 대한 임명은 11월 중앙종회 임명 동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승 스님은 "호법부에서 일한 경험도 있으니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하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스님은 또 전임 호법부장 상운 스님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원활한 업무를 위한 인수인계를 당부했다.

혜오 스님은 "호법부는 종법에 따라 승가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혜오 스님은 1980년 백정사에서 청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88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생사 주지와 총무원 호법국장,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개암사 주지를 맡고 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경우 스님, 종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조계종 고창 선운사 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단독입후보한 경우 스님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신임 중앙종회의원 경우 스님은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9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경우 스님은 만일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호법국장, 사서실장 등을 엮임했으며 현재 장경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장 특보 등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생활·대중불교 본격 연구할 터

전승원 개관 기념 밀교국제학술회의 연 회당학회장 지성 정사



"현교(顯教)의 발전과 밀교의 발전이 균형있게 진행될 때가 불교가 중흥하는 때입니다."

진각종(통리원장 혜정 정사) 새 청사인 진각문화전승원 개관을 앞두고 진각종 회당학회(회장 지성 정사)는 10월 27일 종도들의 화합과 밀교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밀교문화와 현대사회'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지성 정사는 불교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회 각 분야에서 불교의 다양한 실천을 강조했다.

지정 정사는 "밀교는 토속신앙과 불교와 접합하는 과정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밀교적 경향은 모든 종교에 녹아있다"며 "생활불교·대중불교를 지향하는 진각종 종지를 널리 펴기 위해 보다 활발한 학술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회당학회는 2002년 진각성존 탄생 100주년을 맞아 총인원에서 '세계밀교의식 시현'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진각문화전승원은 서울 월곡동 총인원 자리(5700여평)에 120억 원(종단 출연금 60억원, 국고 지원 60억원)을 투입해 지어지고 있다. 전승원은 포교와 자선, 복지, 문화가 어우러지는 종합 종교타운으로 건립돼 10월경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주변 민원 발생과 사용허가 문제, 내부단장으로 인해 개원이 내년 말로 연기된 상태다.

이날 행사에서는 '밀교문화와 현대사회'를 주제로 회당학회 전 학회장 효운 정사가 기조연설에 나섰으며 한금과 중국 섬서성불교협회 부회장, 나레쉬만 네팔 트리뷰반대 교수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지성 정사는 "전승원은 밀교문화와 함께 불교문화 중흥의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승원 개원에 발맞춰 밀교수행프로그램과 학술대회 개최 등을 준비하겠다. 밀교문화 발전에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현교와 밀교

현교(顯教)란 공개적이고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가르침을 의미하며 밀교(密教)는 비밀스런 가르침을 의미한다.

현교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방법을 대중에게 숨김없이 공개해 특별한 제자가 아닌 누구라도 배울 수 있게 하는 종교로 일반적 의미의 불교가 현교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밀교는 비밀의 교의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비밀리에 전수하는 종교다. 즉,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은밀한 전달을 통해 이어 나가는 종교다. 밀교의 목표는 살아있는 몸 그대로 성불하는데 있다.

밀교의 가장 큰 특징은 신비주의와 주술인데 경전 구절이나 불보살도, 문자 등을 응용한다. 옴마니반메훔과 같은 다라니가 유명하다. 일본은 정통밀교인 진언종 교파가 크게 발전해왔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제주 관음사 신임 주지 성효 스님

10월 26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 당선



조계종 제주 관음사 주지에 성효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조계종 23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6일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으로 입후보한 성효 스님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날 산중총회는 후보자간 단일화 합의로 입후보한 3명의 후보자들이 사퇴함에 따라 산중총회법에 의거해 만장일치로 진행됐다.

성효 스님은 정대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82년과 1987년 사미계와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14·15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환경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총무원 재정국장과 문화국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스님은 14대 종회의원 초선으로서는 처음으로 법제분과위원장을 맡았다.

현재 관음사 부주지와 용인 용덕사 주지,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등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금강대, 전인 대사에 명예박사

중국불교협회장으로 천태종 교류 공헌



금강대(총장 정병조)는 중국불교협회장 전인(傳印)대사에게 오는 10월 31일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전인 대사는 중국불교협회장으로서 한중 불교우호교류와 증진에 기여했고, 교육 종교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전인 대사는 1927년 1월 30일 태어나 1947년 불교에 귀의해 1954년 강시성 용수현의 진여사에서 허운 대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1965년 중국불학원을 졸업한 스님은 북경불교협회장, 북경시정치협상회의 제9·10·11차 상무위원을 지냈고, 현재 중국불학원장, 중국불교협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1986년 〈인도불교예술〉, 〈아소카왕과 불교〉 등을 시작으로 특히 천태종과 관련한 논문 및 저서 〈천태사교송략서〉, 〈천태육즉불의〉 등을 저술해 천태종의 법맥을 이어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와 정보보안 인재양성 MOU 체결

동국대(총장 김희옥)와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회장 이득춘)가 정보보안산업 분야 발전과 전문 인재양성에 힘을 합친다.

동국대 김희옥 총장과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이득춘 회장은 10월 26일 동국대 본관에서 상호협약식을 체결하고, 양 기관이 ▷정보보안산업의 균형발전 및 확산 촉진 ▷산학맞춤형 정보보안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정보보안 전문인력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희옥 총장은 "최근 정보보안과 관련분야 인재양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양 기관의 상생협력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으로 우리나라 정보보안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김희옥 동국대 총장(좌측)과 이득춘 정보보안 산업협회 회장이 MOU를 체결했다.

제5회 만해예술제 성료

동방대학원대학(총장 정상옥)는 성북문화원(원장 조태권)은 공동으로 10월 21일 성북구청 성북아트홀에서 제5회 만해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날 만해예술제는 만해 스님의 발자취에 대한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장덕 스님의 법고무, 동방대학원대학 재학생과 시인들의 만해 시 낭송, 동방대학원대학 문화교육원 한주연 교수의 살풀이 춤 등 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동방대학원대학은 2007년부터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만해 스님의 기일에 맞춰 '만해다례재'도 봉행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총학생회 선센터 건립기금 1000만원 전달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김영종)는 불교문화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안도 스님(부산 반야원 주지)이 10월 25일 김영종 경주캠퍼스 총장에게 선센터 건립기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도 스님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는 경주캠퍼스 선센터가 하루 속히 건립돼 불교문화와 우리 대학의 발전에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교내 정각원 옆에 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선센터에는 지난 8월에 김영종 경주캠퍼스 총장이 인도 다람살라 의료봉사 당시 달라이라마로부터 전해 받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선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9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11월 중

◆ 개강일시 : 2011년 11월 개강. **매주(월,금) 오후 5시~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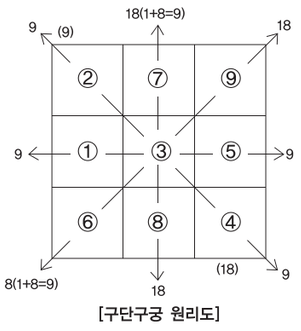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 종헌 (정흥교) 큰스님 직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구단구궁법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표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구단구궁 원리도]

***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강 의
목·금·토요일
오후 2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부산불교전법대학·대학원 – 구단구궁연구회 051)467-4665 / 010-7725-1024